



고흥 우주항공클러스터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련 산업 유치가 절실하다. 지난달 3차 발사를 앞두고 나로우주센터 발사대로 옮겨지는 나로호의 모습. <한국우주항공연구원 제공>

# ‘디자인 메카’ 광주

### 2015국제디자인연맹총회 유치 ... ‘디자인 산업 도시’ 발판 문화전당·디자인비엔날레·디자인엑스포와 ‘시너지 효과’

광주시는 2015국제디자인연맹(IDA)총회 유치를 계기로 지역 디자인 산업과 경제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광주에서는 2015년 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에 이어 광주비엔날레 개최 20주년을 기념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열리고, 국제디자인엑스포 등도 개최될 예정이어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10월 중 70여개 국가에서 세계 디자이너, 디자인 관련 단체 회원 등 400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총

회는 10일동안 컨벤션과 전시, 비즈니스 결합패 IDA총회와 소속 단체별 총회,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문화, 과학기술, 산업, 교육 분야와 디자인이 접목된 행사와 함께 35세 이하 젊은 디자이너들의 국제워크숍이 열리는 등 세계 디자인의 현재와 미래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광주시는 이번 총회를 우리나라의 디자인 위상과 함께 광주의 도시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2013년

을 디자인 산업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디자인 프로젝트 실용화 ▲디자인 거점기관 기능 활성화 ▲디자인 비즈니스 행사의 산업화 등 3대 역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5대 신 특화산업으로 ‘디자인융합 산업’을 선정하고, 3년간 38억원을 투입해 디자인융합분야 연구개발과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품디자인과 포장디자인 등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또 2005년 설립한 광주디자인센터는 조직을 확대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산·학

연계를 위해 융합형디자인대학을 육성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디자인의 역사와 인물, 상품들을 한자리에 전시할 수 있는 ‘디자인 명예전당’을 건립해 디자인이라면 한번쯤 들려야 할 디자인의 메카로 만들어 낸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디자인 산업은 연구개발(R&D)사업에 비해 매출 증대 효과가 매우 높고 자동차나 반도체에 비해서도 부가가치가 2배 이상 클 정도로 매력있는 산업”이라고 밝혔다. /박정기자 jkpark@kwangju.co.kr

## 활짝 열린 ‘고흥 우주시대’ 한 우주항공클러스터 조성

# 연구·제작·발사 한곳에서 유기적 연결돼야 효과크다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국내 우주항공 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나로호 발사의 경제적 효과는 최대 2조4000억원에 이르며, 관련 산업의 확산 속도도 빠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나로호를 발사한 현장인 나로우주센터 일대에 관련 연구시설과 산업을 집적화하는 고흥 우주항공클러스터 조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흥이 명실상부한 우주 산업의 메카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과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태다.

◇정부 지원이 곤란=전남도와 고흥군은 우주와 항공, 문화관광 등 3개 분야, 14개 사업에 1조6000억원을 투입해 고흥 일대에 우주항공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지만 정부 지원이 부족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주항공클러스터 관련 지난해 국비 지원은 4억원에 불과했다.

최근 정부가 나로호 발사 성공에 따라 오는 2021년으로 예정됐던 한국형 발사체 발사시점을 2~3년 앞당기기로 하는 등 우주항공산업 육성에 의욕을 보이고 있어 우주항공클러스터 조성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예산 지원에 따라 우주항공클러스터 조성 시기도 앞당겨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넘어갈 할 산도 많아=현재 국내

정부 예산 지원 분산 연구 대전·산업 사전 계속 땀 ‘알맹이 없는 발사장’ 우려 지역 업체·인력 양성 시급

우주 관련 기관과 산업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있는 대전,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경남 사천, 발사장이 있는 고흥으로 분산돼 있다. 이 때문에 ‘연구는 대전에서, 산업은 사천에서, 발사는 고흥에서’라는 논리가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고흥 우주항공클러스터는 돈이 되는 산업과 연구 시설은 하나도 없는 ‘알맹이 없는 발사장’에 그칠 우려가 크다. 실제, 이번 나로호 발사 과정에서도 연구와 발사체 조립 등은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진행됐고 고흥에서는 1단과 2단 로켓, 위성을 최종 조립하고 발사하는데 그쳤다. 나로우주센터가 지역 발전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구와 산업 분야의 유치가 필수적이다.

◇연구기능 먼저 갖춰야=일본의 로켓 개발에는 지역의 작은 철공소도 참여해 진행됐다. 로켓 발사 과정에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면서 관련 기술을 습득하고, 새로운 영역의 부가가치를 만든 셈이다.

현재 나로우주센터의 확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발사체 실험 시설 등이 조성되는 확장 사업이 마무리되면 나로우주센터의 연구 기능이 강화되고 연구 인력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고흥 우주항공클러스터를 비롯해 주변의 연구 기능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 클러스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제작(산업)·발사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지역 내 우주항공 산업은 결연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슷한 형태의 우주항공클러스터를 준비하고 있는 사천에서는 한국이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KT-1 기본훈련기와 국내 첫 초음속기인 T-50가 생산되고 있다. 또 시험비행시설을 갖춘 사천의 28개 업체들은 국내 항공산업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대 항공우주공학과 공창덕 교수는 “현재 나로우주센터 주변에 관련 산업 인프라는 없지만 발사체 관련 산업, 위성체 관련 산업 위주의 산업단지를 유치하면 된다”면서 “광주의 첨단지구와 대학, 과기원에서 우주항공 인력 양성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인력 양성이에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국회, 한국형발사체 예산 4년간 1000억원 삭감

나로호(KLSV-I) 발사 성공을 계기로 정치권은 한국형발사체(KLSV-II) 등 후속 우주개발 사업 일정

을 앞당겨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관련 예산은 최근 4년동안 3분의 1 가량이나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올해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을 통해서라도 정치권이 한국형발사체의 기본 추진체인 75t급 액체연진 개발을 위한 시험설비 구축 예산 등을 늘려줘야 조기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게 항공우주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3일 교과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한국형발사체 사업에 올해까지 4년동안 실제로 배정된 예산은 모두 2192억원(교과부+항공우주연구원 배정분)이다.

그러나 이는 당초 한국형발사체사업계획상 4년동안 필요 예산으로 책정된 3119억원보다 30%, 약 1000억원 가량 적은 액수다.

최근 경우만 보더라도 지난해 당국은 한국형발사체 사업 예산으로 1619억원을 요청했으나, 국회가 승인한 것은 1152억원에 그쳤다. 올해 역시 예산 요청액은 1500억원이었지만 국회에서 최종 배정된 예산은 460억원 줄어든 1040억원에 불과했다.

한 항공우주 전문가도 “정치권이 돈도 주지 않고 일정한 앞당기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종두

불수록 아주 가관입니다

아름다운 기업-금호아시아나

KUMHO TIRES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당신... 당신은 마제스티입니다

흔들림 없는 퍼포먼스 - Majesty SOLUS

보이지 않는 곳까지 프리미엄하게, 마제스티 솔루션

흔트리지 않는 승차감: 최신 소재배합 시스템으로 어떤 노면에서도 느껴지는 편안함  
 품격을 더하는 정숙함: 금호타이어의 50년 기술 노하우로 구현된 최첨단 소음감소기술  
 언제나 돋보이는 안정성: 특수 제작된 실리카 컴파운드로 경향하는 최상의 제동력